

Ⅲ. 결론

1. 요약 및 평가

1) 요약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급증한 도시 슬럼에서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표류하고 있는 새로운 이산자(離散者)인 도시 빈민들이 슬럼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오순절-성령운동과 만나,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오순절-성령운동을 저항적·해방적으로 번역/해석하고 있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번역/해석된 오순절-성령운동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교 선교가 그러했듯이, 어제의 그리스도교를 현대와 새롭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교로 새롭게 갱신시키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부분이다. 큰 틀에서 1960년 무렵부터 사용된 ‘지구화’ 개념의 맥락에 위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구화가 가진 양극단의 가능성 가운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심각한 소외와 배제의 문제, 즉 극단적인 정보와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점점 가속되는 정보와 부의 집중화와 그로 인해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의 비인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주창한 새로운 자유와 세계화는 결국 ‘자본의 자유’를 뜻

하는 것이었고, 근대 국민국가의 통제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다수의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기본적인 인권인 사회권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비정한 심판자로 존재하며 그 약자들끼리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고, 기존의 ‘빈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설명하고 대응하고자 나온 개념이 ‘사회적 배제’이다.

둘째, 가속되는 지구의 도시화와 슬럼의 급격한 양산,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지구의 도시화와 이 가운데 심각하게 양산되고 있는 도시의 슬럼화 현상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이 연관의 고리 뒤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IMF와 세계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슬럼화로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도시 빈민들은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셋째, 슬럼이라는 지정학적geopolitical이며 사회·문화적인 시공간에서 만난 도시 빈민과 오순절-성령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가속된 도시화와 그 가운데 급격하게 형성된 슬럼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당한 채 표류하고 있는 도시 빈민들은, 그곳에서 그러한 비인간적 운명을 비판하고 거부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의 오순절-성령운동을 만났다. 그런데 이 둘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둘은 서로의 맥락으로 서로를 끌어들이어 새롭게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 또는 극복이라는 대응으로 나타났지만, 하나의 틀로

규정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양상으로 각 지역의 맥락에서 변화되어 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실례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남미 도시 빈민들의 삶의 맥락과 만나 서로 변화된 오순절-성령운동,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여성들의 급진적인 해방의 통로로 서로 작용한 오순절-성령운동, 자신들의 지정학적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오순절-성령운동을 만나게 하여 새로운 생태적·우주적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켜가고 있는 아프리카 AICs의 오순절-성령운동, 50년대 남북전쟁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소외와 배제 그리고 문화적 표류 속에서 절망하던 이들과 만나 서로 변화된 한국의 오순절-성령운동을 제시했다.

넷째로 슬럼이라는 지정학적geopolitical이며 사회·문화적인 시공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변화시킨 도시 빈민과 오순절-성령운동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본 연구자는 이 상호작용이 바로, 앤드류 윌스의 “선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변화”와 라민 싸네의 “번역에 의한 선교” 개념에 해당하는 번역/해석의 과정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성령운동이 갖는 특성상, 이 운동이 도시 빈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번역/해석의 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포섭되어 버린 현대사회 속 사회적 배제의 대상인 다수의 약자와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저항적·해방적 운동이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다만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시작되어 자라온 오순절-성령운동이 앞으로 더욱 저항적·해방적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저항적·해방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2) 평가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새롭게 번역/해석되는 성령의 가능성을 논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탈(脫)식민주의 post-Colonialism 시대에 사회적 배제의 대상인 도시 빈민들과 더불어 저항하고 해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오순절-성령운동을 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意義)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을 논하는 자료구성과 분석에 있어서 그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현장’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 사회적 현상의 자리에 자리 잡은 도시 빈민의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자리 잡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순절-성령운동이라는 종교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이것이 의미하는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새롭게 번역/해석되는 ‘성령’이라는 해석학적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들과 그 분석에 있어서, 먼저는 연구자의 사회학적 훈련이나 해석학적 훈련이 일천(日淺)하고 매우 부족하고, 둘째는 그 자료들 또한 이 논문의 주제만을 위해 조사되고 구성된 자료가 아니기에, 그 구성과 분석에 있어서 엄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롭게 번역/해석되는 성령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현장인 도시 빈민들의 표류하는 삶과 만나 저항적·해방적 운동으로 새롭게 번역/해석되는 오순절-성령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느라,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성찰도 부족한 감이 크다. 다만 위와 같은 한계들은 연구자의 능력 부족과 부족한 지면으로 인해 추후에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입장’(入場)과 ‘소속’(所屬)을 허용 받을까 ...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용 받을 수 있을까?’ 즉, ‘입장권’, ‘소속권’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불안이다.²²³⁾

이 글은 한 ‘재일한국인’이자 작가의 고백이다. 그는 자기 평생의 불안의 이유를 어느 쪽에도 소속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처지 때문임을, 죽기 2년 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40년이 지나가던 때 고백한다. 그에게는 분명한 ‘입장권’, ‘소속을 알려주는 증명서’가 간절히 필요했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슬럼에서 표류중인 도시 빈민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영토²²⁴⁾에서 쫓겨났고, 자·타의에 의해 옳긴 삶의 터전과 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제되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일터와 노동과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배제된, 그래서 늘 어딘가 ‘소속’되고 ‘새로운 영토’로 ‘입장’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도시 빈민들은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해 전유appropriation당하고, 누군가에 의해 재현representation당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자신들의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소리’와 ‘삶’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날 각 지역적 맥락과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함께해온 오순절-성령운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동행해

223)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7), 496쪽.

224) 지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복합적 의미의 ‘영토’를 말한다.

왔다. 여성신학자인 이숙진은 가부장적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동한 한국 개신교 종교권력의 힘 아래 ‘미신성, 몰(沒)역사성, 반(反)지성’이라는 부정적 표상으로 왜곡되어온 오순절-성령운동에서 오히려 가부장적 권력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저항의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가부장적 구조에서 소외되고 주변화 되었던 여성들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장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읽어낸 것이다.²²⁵⁾

이 가운데 이숙진은 소외되고 주변화된 여성들이 선택한 “‘방언’과 ‘간증’이라고 하는 몸짓이 지배적인 남성언어가 휘두르는 지시 기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숨구멍”이었던 점을 포착해냈다.²²⁶⁾ 본 논문에서 살펴봤듯이, 이는 한국의 성령운동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수한 모습이 아니다. 19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발흥하고 성장한 현대의 보편적인 오순절-성령운동에서 ‘방언’과 ‘간증’이라는 표현방식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소망’과 ‘목소리’를 잃은 채 슬럼의 한 귀퉁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도시 빈민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독점적으로 해석에 온 ‘해석에 대한 저항’이자 ‘자기 목소리로 말하기 위한 연습’이 되어 왔다.

이처럼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 그 중에서도 식민지 이후의 시대인 탈식민주의의 시대에,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삶의 자리는 독특하다. 식민지 직후 존재한 이산자들의 삶

225) 이숙진, “방언과 간증: 성령운동의 젠더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6), 242쪽.

226) 물론 이숙진도 성령운동이 전적으로 여성 해방적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성령운동에도 다른 현상처럼 인간해방의 측면에서 부정적 지점과 해방적 지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녀의 표현 그대로, “초일상적 경험의 순간에도 일상의 경험이 묻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글, 243쪽.

처럼 늘 소외되고 배제되며 산다. 같은 시·공간 안에 살지만, 유리벽 너머에 살고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패배주의적 경향이 있기도 하다.

한편 가난한 이들, 이 사회적 배제의 현장인 도시 빈민들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 벽이 결코 자신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는 단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벽이 상탈 무폐의 지적처럼, 자신들을 주변화하여 정치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버리거나 ‘정치적인 것 the Political’으로부터 격리하여 배제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벽 너머에서 살고 싶다거나 그 벽을 깨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그들에게는 항상 넘실거린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시 포섭되어 버린다. 그리고 또 다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전유되고 재현된다.

그래서 이들은 ‘방언’이라는 합리적 언어의 경계 바깥에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말을 배운다. ‘간증’이라는 비(非)합리적 공간에서 말할 기회를 얻는다. 절대적 절망의 자리에서 경험한 성령을 통한 ‘치유’와 전통세상에서 배웠으나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는 ‘옛 이야기’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자신들에게 말을 가르쳐 주고 말할 기회를 주는 오순절-성령운동이라는 장(場) 안에서 번역/해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그람시의 말처럼, 이렇게 새로운 가치구조의 언어로 헤게모니적 구상을 전복하는 ‘실제적 상상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현(體現)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모든 그리스도교 선교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에게 그랬듯이, 자신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비인간적 파괴에 대응하는 가운데 저항하고 해방되고자, 이들은 오순절-성령운동을 통해 자신의 말을 배우고 자신들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가 저항과 해방으로 배치되어 작동했던 역사와 현장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배치가 억압의 배치가 되어 성령을 통해 세워진 저항과 해방의 그리스도교회 공동체가, 또 다시 소외와 배제를 강화하는 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도시 빈민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배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방언’과 ‘간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양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늘 포섭되며 평가될 수 있어야 ‘좋은 언어’라고 여기는 근대적 기준에서, 끊임없이 탈주하는 언어인 ‘방언’과 ‘간증’의 가능성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가정된)하나의 이상적 기준을 가진 언어에 가깝기에 그 언어를 습득하기만 하면 구원적 세계를 지금 살 수 있다는 왜곡 가운데 놓인 언어, 하나의 통일된 구조와 일치된 특징만을 가지고 있어 쉽게 구별되는 언어라고 인식되어온, 그 ‘방언’과 ‘간증’을 그러한 재현과 전유로부터 끊어내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1900년대 이후 도시빈민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온 성령이 허락한 ‘방언’과 ‘간증’은, 지금까지 이해했듯이 ‘원시적(原始的)이고 통일적(統一的)인 하나의 언어’, 즉 ‘이데아적ideal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마치 ‘퍼즐’과도 같고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정표’와도 같은 ‘상징적 언어’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야만 온전한 언어로 작용할 수 있는 ‘한계적 언어’이자 유한(有限)이 무한(無限)을 담지하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다. 이 ‘방언’과 ‘간증’은 불완전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언어사교체계를 만나 그것을 통해 사용됨으로 항상 일정정도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그런 불완전성들이 서로를 불러 일으켜 연대의 하모니를

일으키도록 하는 ‘가능성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허락한 ‘방언’과 이것이 전달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인 ‘간증’은 지금까지 주류 오순절-성령운동에서 이해하고 강조했듯이, “표면적 일치를 이루나, 내용적으로는 불일치”한 측면이 있는 언어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불일치를 이루나, 내용적으로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비로소, 성령의 속성에 의해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인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해방의 언어’가 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 오순절-성령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AICs가 혈연공동체가 곧 제의공동체이었던 기존 아프리카 선교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던 예는²²⁷⁾, 오늘날 서구의 그리스도교만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극복하느라 바쁜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실제적 상상력’이 되어준다. 그것은, 동북아시아라는 좀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성령’을 새롭게 번역/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은, 오늘날의 한국적 맥락에서 포착되는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해방적/저항적 힘을 가진 ‘성령’을 번역/해석하는 과정과 연동(聯動)해야 한다.

나아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슬럼이라는 전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지역적으로는 각각의 지역공동체 Block와 개별 국가단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배제의

227) Karl Müller · Theo Sundermeier 편,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2003), 417쪽.

현장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그 맥락 속에서 각각의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번역/해석되어 종교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저항해 온 새롭게 변화되고 확장된 오순절-성령운동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다양한 저항’을 하는 ‘신학적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신학적 이야기들’ 속에서, 지역성/특수성을 담보한 전 지구적 차원의 거대 저항담론으로서 ‘성령’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여파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의 슬럼가로 쫓겨 온 도시 빈민들은 그곳에서 오순절-성령운동을 만나, 도시 빈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터전한 소외와 배제의 문화 속으로 오늘날의 성령을 번역/해석하여 수용하였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오순절-성령운동은 하나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된 모습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변화되어 확장된 오순절-성령운동이, 때로 부정적인 의미의 강세를 부여받아 원래의 저항적·해방적 차원을 지속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오순절-성령운동이 그렇다. 이들은 상탈 무폐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현실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만을 경험하였기에, 그것만을 상상력의 재료로 삼아 오순절-성령운동과 만나게 하는 한계적 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욕망의 배치에서 부정적인 배치를 깨고, 그 배치를 저항적·해방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再)배치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비 콕스가 발견한 것처럼,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쇼나 AICs이나 엘딘 빌라판Eldin Villafañe의 성령운동-해방신학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신학적인 훈련과, 사회적 배제의 현장에서 도시 빈민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오순절-성령운동의 근원적 체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상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구상하는데 동기가 되었고,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과 성서 구절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노무라 모노유키, “기도”,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 중에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 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살았다. 그런데 이런 말 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 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사도 2:1~8)”